

현대차, 파업 없이 임단협 잠정합의 車업계 올해도 무분규 기대감 높아

기본급 인상·성과급 잠정 합의
파업 철회, 6년연속 무분규 기대
르노·KG모빌리티, 무분규 가능성
한국지엠, 임금 상향에 난항 예상



임금협상 상건례 갖는 현대차 노사.

현대자동차 노사가 2024년 임금및 단체협상(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임단협 난항으로 10일과 11일 부분 파업을 예고했지만 잠정합의안을 극적으로 도출하면서 6년 연속 무분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8일 오후 울산공장 야반테움에서 열린 12차 교섭에서 기본급 12만2000원(+컨베이어수당) 등을 골자로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기본급의 400%와 1000만원에 해당하는 2024년 경영성과급, 2년 연속 최대 실적 달성 기념 별도 격려금 명목의 기본급 100%와 28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임금교섭 타결 관련 별도 합의 주식 5주 지급이 포함돼 있다.

이와 별도로 올해 9월 말에는 '글로벌 누적 판매 1억대 달성' 기념 품질향상격려금으로 500만원과 현대차 주식 20주를 지급한다. 임금협상 외 별도 요구안에 대한 잠정 합의도 이뤄졌다. 양측은 현장직들에게 지급되는 '컨베이어수당'을 인상하기로 했다.

호봉제 폐지를 비롯한 임금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미래변화대응 TFT'를 통해 10월까지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조의 요구가 강했던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양측이 '정년 관련 노사 TFT'를 구성해 대외 정년 연장 제도의 변화 추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2025년 상반기까지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이번 임금협상을 앞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왔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4일 오후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10일과 11일 각각 4시간씩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만약 이날 협상이 불발되면서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기아는 물론 현대차그룹 계열사로 파업 분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이날 현대차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마련하면서 파업 분위기는 한풀 꺾였다.

완성차 업계 만경역인 현대차 노조가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자동차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아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교섭에 돌입했다. 기아 노사는 지난 2일 상건례를 마쳤으며 매주 3회씩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매년 현대차와 비슷한 요구안을 내놓는다는 점에서 잠정합의안을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인다.

현대모비스 노조도 10일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현대차의 움직임에 맞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현대모비스 노조는 현대차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대모비스 노조는 기본급 15만9800원 정액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등 현대차 노조와 같은 수준의 임금 인상 요구안을 사측에 제시했다.

오는 11일 본교섭에 돌입하는 르노 코리아도 올 하반기 신차 출시를 앞둔 만큼 무분규로 임금협상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무분규 기록이 이어온 KG모빌리티도 침체된 내수 판매 등 분위기 반전을 위해 원만한 교섭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지엠은 올해 노사 갈등이 예상된다. 지난해 3월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출시로 지난해 흑자를 기록한 만큼 노조는 기본급 상향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 1일 파업권을 획득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올해 한국지엠 노조는 올해 기본급 ▲15만980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 15% 성과급 지급 ▲통상급 300% 지급 등을 요구했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9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항 설명회를 열고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유튜브 영상 제공



HMM, 한국행 美 오렌지 운송 2년간 1위

캘리포니아산 韓 수입량 33% 운송



HMM의 리퍼 컨테이너를 통해 캘리포니아산 오렌지가 운송되고 있다.

HMM이 한국으로 수입되는 미국 캘리포니아산 오렌지를 가장 많이 운송한 선사로 나타났다.

미국 JOC '피어스 데이터'에 따르면 HMM은 2024년 한국행 캘리포니아산 오렌지 중 총 2982TEU(시장점유율 33%)를 운송해 지난해(2380TEU, 25%)에 이어 2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국내에 수입되는 오렌지는 대부분 캘리포니아산으로 매년 1~4월 사이에 운송된다.

오렌지는 냉동·냉장이 가능한 '리퍼 컨테이너'로 운송되는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화물로, 선사들의 유치 경쟁이 치열한 품목이다. 특히 태평양을 건너는 장기 운송과정에서 신선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운송능력이 필수적이다.

HMM은 전 세계 일부 선사만 운영

하는 '울트라 프리저(Ultra Freezer, 영하 60도까지 냉동이 가능한 특수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운영하는 등 최고 수준의 운송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 HMM은 화주들의 운송정보제공 요청에 맞춰 일부 리퍼 컨테이너에 IoT 장비를 부착하고 올해 6월부터 한국, 미국, 멕시코, 칠레, 페루 등 7개국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현대차, 2000만원대 전기차로 반등 노린다

'캐스퍼 일렉트릭' 공개 사전예약

국내 완성차 업계가 전기차 시장 분위기 반등을 위해 2000만원대의 비교적 저렴한 전기차를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완성차 업계는 지난해보다 국산 전기차 판매가 30%가량 감소하는 등 판매 부진이 장기화되자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낮춘 모델로 반등을 노리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그룹은 '전기차 대중화'를 목표로 다양한 차량을 선보이고 있다. 현대차는 2000만원 초중반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전기차 '캐스퍼 일렉트릭'을 공개하고 이날부터 사전예약을 시작한다. 기존에 가장 저렴한 전기차 모델인 레이 EV보다 낮은 가격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캐스퍼 일렉트릭 인스퍼레이션 모델

의 판매 가격은 전기차 세제혜택 적용 전 기준 3150만원이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고시 등재 완료 후 세제혜택을 적용하면 판매 가격이 2990만 원부터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지자체 보조금을 고려할 경우 2000만 원 초중반대의 금액으로 인스퍼레이션 모델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캐스퍼 일렉트릭은 픽셀 그래픽을 적용한 다부진 디자인, 여유로운 도심 주행이 가능한 315km의 1회 충전 주행 가능거리, 차급을 뛰어넘는 다양한 편의·안전 사양으로 차별화된 상품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진정한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 독보적인 상품성과 합리적인 가격을 갖춘 캐스퍼 일렉트릭을 준비했다"며 "캐스퍼 일렉트릭은 전기차 구매를 고민하는 많은 고객들에게 새로운 기준이자 가장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국제선 운항 지연률, 국내선보다 낮아

최근 1년간 국제선 시간준수율 81%
올해 1분기, 국내선 75%·국제선 77%
1~5월 통계 기준 에어서울 가장 낮아

국적 항공사 이용객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선이 국내선보다 운항 지연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국제선 시간준수율이 국내선보다 높게 나왔다. 지난 2023년 2분기 국내선 시간준수율은 76.4%인 반면 국제선은 81.1%였다. 3분기에도 국내선은 74.2%였으나 국제선은 78.4%로 국내선보다 높았다.

4분기에는 국내선 73.6%, 국제선 74.7%로 격차가 좁혀졌지만 여전히 국제선의 시간준수율이 높았다.

2024년 1분기에는 국내선 74.9%, 국제선 77.4%로 다시 격차가 벌어졌다. 올해 5월 통계에선 국내선 시간준수율이 81.7%로 국제선 79.6%를 앞섰다. 국내선 지연율이 17.7%를 기록한 반면, 국제선 지연율은 20.4%를 기록했다

00	GWANGJU	t'way	TW 903	
05	13:30	YEOSU	0Z 8197	DELAYE
10		제주항공	7C 113	DELAYE
10	13:59	KOREAN AIR	KE 1097	DELAYE
15	13:26	0Z 8143		ARRIVE
20	13:48	t'way	TW 9873	
25	14:04	제주항공	7C 509	DELAYE
25		제주항공	7C 115	DELAYE

항공기 지연 소식을 바라보는 여행객.

/뉴스IS

다. 하지만 국내선 결항률은 0.67%로 국제선 결항률 0.11%에 비해 높게 나왔다.

2024년 1월~5월 통계를 기준으로 시간준수율이 가장 낮은 국적 항공사는 에어서울이다. 에어서울의 지연율은 지난 ▲1월 56% ▲2월 58.7% ▲3월 51.4% ▲4월 34.9% ▲5월 60%였다. 시간준수율이 높은 일부 항공사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날씨에 따라 국내선과 국제선의 지연율 및 결항률이 차이를 보이기도 했

다. 지난 2023년 5월 국내선의 지연율은 24.9%, 결항률은 2.07%였다. 반면 국제선은 지연율 15.7%, 결항률 0.26%였다.

2023년 5월 제주도는 800mm가 넘는 폭우와 초속 22m가 넘는 강풍이 찾아왔다. 제주공항이 마비돼 수백 편의 항공기가 운항을 못 했다. 국내 노선 중 제주 노선의 비중이 큰 만큼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백대성 수습기자 iamnds@

HD한국조선해양, 맞춤형 'AI 번역 기술'

'AI Agent' 선박건조 현장 적용

HD한국조선해양이 맞춤형 'AI 번역 기술'을 개발해 외국인 근로자의 적응을 돕는다.

HD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 번역 서비스 'AI Agent'의 1단계 개발을 완료하고, 전남 영암에 위치한 HD현대삼호의 선박 건조 현장에 실제 적용했다고 9일 밝혔다.

'AI Agent'는 조선소 내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 효율 및 숙련도 향상을 위해 HD한국조선해양이 자체 개발한 번역 서비스로, 실제 선박 건조 현장에 최적화해 조선업 맞춤형으로 제작됐다.

기존에 사용되던 범용 번역 서비스들이 조선소 현장에서 통용되는 전문 용어나 방언 등을 적절히 처리하지 못해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못했고, 외국인 근로자별로 사용하는 언어

가 달라 매번 설정을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HD한국조선해양은 현장 및 국가 표준 조선 용어 1만 3000개와 선박 건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4200개의 작업 지시 문장을 수집, 대규모 언어 모델(LLM)에 학습시킴으로써 조선업 맞춤형 번역 서비스를 개발했다.

'AI Agent'는 채팅앱, 챗봇 서버, 번역 모듈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작업자가 채팅앱에 대화 내용을 입력하면 챗봇 서버를 통해 메시지가 번역 모듈로 전달돼 자동 번역 후 채팅앱에 노출되는 방식이다. 실제 HD현대삼호의 경우 자체 업무용 채팅앱인 '팀업'과 연동, 채팅창에 입력한 내용을 근로자가 설정한 언어로 자동 번역되도록 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양성운 기자